

하나님의 춤과 노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어두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의 생을 어떻게 마감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여기서 한 가지 되짚어 두어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야고보 (James, *Jacobus*)의 죽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에 관련된 오래된 사서(史書)의 기록들을 통해 이들의 죽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하 기록들을 토대로 하나하나 면면을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Herod, *Herodes*)의 칼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행 12:02). 곧 참수(斬首)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헤롯은 로마제국이 유대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소위 분봉왕(分封王, Client King)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약의 4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를 통해 헤롯왕을 잔인하고 음흉한 광기어린 군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도 그렇지만

은 않습니다. 곧 헤롯은 신도시(新都市)를 건설하고 신진농업을 장려하여 유대의 경제적 기반 확충에 힘쓴 식견 있는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유대지방에 대가뭄으로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부터 곡물을 수입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고, 때로는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보호자로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당시 헤롯은 유대지역 외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꽤나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헤롯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한 곳으로 여기고 있었던 예루살렘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재건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합니다.

그렇지만 헤롯의 가정사는 끊임없는 의심과 모함 그리고 처형으로 얼룩진 삶 자체였습니다. 곧 헤롯은 재위 시 자신의 아내나 아들들을 포함하여 장모까지도 살해하는 패륜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데, 이 때문에 그는 항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 속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헤롯은 유대전통에 반하는 이교적(異敎的)인 일들을 수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보았던 갈릴리(Galilee)에서 빌라도(Pilate, *Pontius Pilatos*)의 만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비추어 야고보는 이 같은 헤롯의 이교적 풍습에 따라 희생양으로 선택되어 참수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갈릴리 사건과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이때 유대인들은 야고보의 참수를 접하고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Peter, Simon, *Petrus*) 또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처형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 일촉즉발의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행 12:03-12).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후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올곧게 감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로마에서 X자 모양으로 틀어진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최후의 삶을 마감하고야 맙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떠 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떠 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요 21:18-19)

한편 마태(Mathew, *Matthaios*, *Matthaeus*)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고, 요한(John, *Johannes*)은 로마의 가혹한 기독교 박해(大迫害) 시기에 펠렐 끓는 기름가마에서 처형될 위기를 맞게 되나 기적적으로 죽음만은 면하게 됩니다. 대신에 밋모섬(Patmos)에 유배를 당하고 그곳 감옥에서 광석 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때 기록한 것이 곧 요한계시록(Revelation)입니다. 이후 요한은 현재 터키(Asia Minor, Anatolia)로 석방되어 그곳에서 남은 생을 지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평화롭게 죽은 유일한 사도입니다.

참고로 로마는 한때 대화재로 도시 대부분이 불타게 되는데(A.D.64), 당시 로마황제 네로(Nero, *Lucius Domitius Ahenobarbus*, A.D.37-68)는 책임을 기독교도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이후 수많은 기독교도들이 가혹한 박해의 대상이 되고야 맙니다. 사서(史書)에 따르면

당시 로마제국은 기독교도를 처형함에 있어 십자가에서의 처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시체를 기름가마에 넣거나 심지어 개들의 뱃으로 주기까지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로마의 ‘기독교 대박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James, *Adelphotheos*)는 초지일관 올곧은 신앙을 지켜간 사도로서 예루살렘교회 수장(首長)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인근 템플(Temple)지역 동남쪽에 있는 약 30m 높이의 탑에서 이교도(異教徒)에 의해 떨어뜨려져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땅에 떨어졌을 당시 그나마 숨은 불어 있었지만 그를 밀쳐 떨어뜨렸던 이교도는 그 모습을 보고 채찍으로 가혹하게 때려 숨을 끊어 놓았다고 합니다. 일설(一說)에 그 탑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맞서고자 오르셨던 탑이었다고도 합니다(마 04:05, 눅 04:09).

나다니엘(Nathanael,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고도 불리는 바돌로매(Bartholomew, *Bartholomaeus*)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소아시아(Asia Minor, *Anatolia*, 지금의 ‘터키’)로 간 일련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아르메니아(Armenia)에서 설교 중에 붙잡혀 채찍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안드레(Andrew, *Andreas*)는 그리스에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X자 형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당시 7명의 군사가 안드레의 살이 벗겨지도록 잔인하게 채찍질을 한 후, 고통을 더하기 위해 십자가에 이틀을 더 묶어두었다고 합니다. 안드레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가 처형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행복한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 왔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성하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를 동안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군인들에게 숨이 멎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
고 합니다. 의심 많았던 예수님의 제가 도마(Thomas)는 인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선교여행 중에 이교도의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가롯유다(Judas Iscariot, *Judas Iscariot*)를 대신해서 선택된
맛디아(Matthias)는 돌에 찍힌 후에 참수되었다고 하고, 사도바울 또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로마의 네로에게 참수되었다고 합니다(A.D.67).
사서의 기록은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예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04:01-08)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한결같이 이처럼 끔찍한 죽음에 이르러야만 했을까요? 당시의 시대상황(기독교 대박해)에 비추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들의 죽음을 이처럼 참혹히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필자가 보기에는 그들의 소원(所願)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자 원했던 그들의 한결같은 소원 말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참혹하게 죽어간 이들의 모습을 하늘 보좌에서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사는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던 것은 둘째치더라도, 그들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들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고자, 그것도 끓는 기름가마에, 때로는 거꾸로 박힌 십자가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만을 기쁘게 부르며 죽어간 그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채로 그렇게 넉넉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필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러실 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발을 동동 구르시며 가슴을 쓸어내리시며 전전긍긍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보기에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셨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악한 세상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도 기뻐하는 중에 안타깝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썼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다면, 이 같은 고난을 그저 그렇게 맞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천부당만부당한 열토당토않을 소립니다. 아마도 그들 앞에서 이 같은 고난의 형장(刑場)을 눈앞에서 깡그리 쓸어버리셨을 것입니다. 이 땅위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마 30:17)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이교도를 되레 죄다 잡아 산 채로 스올에 빠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그들의 소원뿐일 것입니다. 바로보기에 그들은 것처럼 참혹하게 죽어 그들에게 보여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 또한 예수님께 확증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선대로서 후사(後嗣)된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기리게 할 수 있도록 소원에 두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을 또 다시 우리의 후세들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소원에 두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지극하신 보혈(寶血)의 공로에서 비롯된 신앙의 유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사도바울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요 21:17)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02:20)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선대로서 예수님 제자들의 소원은 지금 이 땅에서도 면면히 계수(繼受)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 같은 자랑스러운 혈전(血戰)의 공로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앞에 대를 이어가며 이어지고 또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의 흔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갈 06:17).

“하나님, 내 손톱이 빠져 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견딜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유관순(柳寬順, 1902-1920) 열사의 유언]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죽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손양원(孫良源, 1902-1950) 목사님의 유언]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가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조선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숯불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주기철(朱基徹, 1897-1944) 목사님의 유언]

“이제 신생국가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경찰서 열 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합니다.”[김구(金九, 1876-1949) 선생의 어록 중]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자주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를 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데 대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애국선열들의 희생적 혈전의 공적을 감사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이승만(李承晩, 1875-1965) 의장의 최초 제헌국회 개회사 중]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서 일제의 폭력을 꺾으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윤영(李允榮, 1890-1975) 감리교 목사의 최초 제헌국회 대표기도]

“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한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본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저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나로서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지혜와 덕을 배워 그리스도의 최고 인격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바라며,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돕고, 좋은 사업을 하고, 또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선한 씨를 많이 뿌려야 할 것입니다.”[한경직(韓景職, 1902-2000) 목사님의 유언]

그렇다면 신앙의 사도로서 목회자를 포함하여 필자 또한 우리들은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죽고자 원하고 계십니까? 그 죽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앞선 선대들의 신앙고백에 비추어 부끄럽지는 않으신가요? 아닌 게 아니라 그도 저도 아니라면 또 다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십자가는 커녕, 돌도 없고, 채찍도 없으며, 참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끓는 기름가마도 없는 형편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죽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우리의 한결같은 신앙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모름지기 이 세상을 지치는 동안 크리스천 된 필자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은 저 천국에 있을 것임이 자명할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의 은사에 감격하여 사는 당당한 크리스천이라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자 축복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크리스천으로서 올곧게 바로 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바로 죽을 수 있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크리스천의 명패를 두른 사람이라면 뉘나 다름없이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 골고다의 구렁을 지쳐, 끝내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이생을 마감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하여 또한 그 나라를 위하여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살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자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자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며, 가진 것을 부단히 나눠 나보다

못한 자를 위하여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여야 하는 주체도 크리스천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한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를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당당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누구 못지않게 가장 비참하고도 멋있게 죽으려고 안타깝게 애쓰는 삶,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필자 또한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 가슴 처처에 바로 새겨 깊이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간 우리에게 잊혀 있던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을 바로 찾아 여기에 통한의 참회를 덧붙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이 솟을 수 있게 우리 모두 여지없이 십자가에, 돌과 창에, 기름가마에, 죽을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처럼 가장 비참하고도 멋있게 생을 마친 후 바야흐로 그토록 소망하며 간절히 염원했던 저 천국에 입성하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맞아 주시겠습니까? 그냥 보좌에 앉아서 두 팔로 감싸 안아만 주시겠습니까?

필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러실 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선대들과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아 놓지 않으시고 춤을 덩실덩실 추시며,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노래까지 덧붙이시면서 그렇게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준비해 두고 계신 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를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그리고 당당하고도 자랑스럽게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 03:17)